

# Annapurna Mt.

모르쉬아디(Morshidi) Premier 8,000m 명칭의 유래  
안나푸르나란 산스크리트어로 '풍요의 여신' 또는 '수확의 여신'을 의미하며 인류에 의해  
최초로 등정된 8,000m 이상의 고봉이라 하여 Premier 8,000m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 안나푸르나여 영원하라... 내 다시 오리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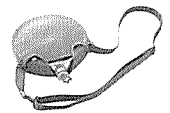
(지면 관계상 전체 여행기 중 중요 일정만을 게재하였다)

||||| 천 영 춘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보실

### 들어가며...

산과의 인연은 오래 전부터 맺어왔던 터였다. 서울 연구소 시절 산악회에서 동반하는 산행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가하였고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어느 해에는 개근상을 타기도 했다. 지금 안나푸르나의 산행기를 쓰면서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보니 그때의 그리운 얼굴들이 되살아 난다. 어느 분은 타계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실까 궁금하고 보고싶은 얼굴도 떠 오른다. 새삼 그 좋았던 그림고 젊고 활기에 찬 꿈이 있었던 그 시절의 향수에 젖어지며 마음이 뭉클해진다.

해의 원정은 언젠가는 꼭 이루고 싶어 늘 마음속에 두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 연구소 산악회의 원정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매스컴을 통해서나 접할 수 있었던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었구나 생각하니 기대와 설렘과 또한 잘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출발 이틀전부터 잠을 잘 이루지 못하였다.





드디어 안나푸르나를 향하여 떠나는구나!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 마음이 편하고 가볍지만은 않았다. 아버님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야 하므로 마음 한편은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듯하고, 사무실 업무 또한 발걸음을 가볍게 하지는 않아 머리와 마음이 묵직해졌지만 일단 모든 것 덮어두고 안나푸르나 산행, 고소극복만을 생각하기로 마음을 다잡아 먹었다.

산행이 결정된 후 안나푸르나의 지도, 고도적응과 고산병, 트레킹 장비, 네팔의 문화 등등의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다. 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 고소적응이었다. 고산병으로 도중 산행을 포기해야만 하는 낙오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더 더욱 나로 인하여 다른 대원에게 민폐를 끼치는 불상사가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것이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다. 나름대로 고소극복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수분섭취를 충분히 하고 천천히 깊은 심호흡으로 신선한 공기를 충분히 공급받아 탈수와 산소의 소모를 막아야 한다. 고도에서 비교적 소화흡수가 용이하고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해야 하며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영양식으로 마련된 미숫가루, 비타민, 미네랄제품, 분말로 처리된 과일 등 나름대로의 비상식량을 개인적으로 준비하였다.

3월 초부터 감기가 들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감기는 정말 지독하기도 하다. 네팔에서는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감기약을 챙겨두었다. 또한 그곳은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과 상황이 열악한 국가이며 특히 의류가 많이 부족하므로 깨끗한 현 옷을 준비해 가면 아주 귀한 선물이 될 것이라는 히말라야 등반 경험이 있는 선배들로 부터의 정보를 듣고 어린이 위주의 옷가지를 준비하고, 또한 학용품은 어린이들에게 요긴 할 것이라 생각되어 기증을 받기도 하고 구입하기도 하여 나름대로의 선물을 준비하였다.

일곱째날, 2004년 4월 2일 금요일

오늘은 ABC(Annapurna Base Camp)에 오른다고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설레는 아침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승냥

으로 보온병을 채우고 나의 짐을 들어주는 Porter에게 영양깡을 건네준다. 그도 변함없이 고맙다는 눈인사를 건넨다. 6시 40분 ABC를 향하여 출발이다. 약 한시간 정도 완만한 평지를 오르니 ABC가 꽤 가까이 다가와 있다. 오전 9시 15분 드디어 우리의 목적지인 ABC에 도착하였다. 앞으로는 안나푸르나 남봉(Annapurna South), 강가푸르나, 히운추리, 마차푸차레 등 히말라야 연봉에 둘러싸인 ABC는 아늑한 보금자리 같다. 그 위용은 정말 장관이다. 히운추리는 “눈을 쓰고 있는 산”이란 뜻이며 안나 남봉과 제1봉 사이에는 10 Peaks가 있다고 한다. 비록 안나푸르나의 정상(8,091m)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보는 연봉의 풍광만으로도 평범한 모든 이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드디어 내가 이곳에 왔구나! 그저 감사 할 뿐이다. Pemba는 안나푸르나 연봉의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 있다며 우리를 안내한다. 이곳은 우리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해발 4300m이다. 모두들 역사적인 기념촬영을 하느라 분주하다. 사진을 찍은 바로 뒤는 깊은 낭떠러지기며 끝없이 넓고 바닥이 깊은 협곡이다. 겨울에는 이곳이 모두 눈으로 덮인다고 한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이곳이 정상에 오르기 위한 실제 Base Camp 였으나 지금은 안나푸르나 남봉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안나푸르나의 연봉이 웅장하고 장엄한 자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닌 듯하다. 우리가 사진을 촬영하고 마음껏 풍광을 만끽하고 내려오자 구름과 함께 날씨가 흐려져 안나푸르나는 구름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점심식사 후 일행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동안 나의 컨디션을 간파한 Pemba는 먼저 하산할 것을 권유한다. 역시 일행의 한사람 한사람을 고려하여 스케줄을 조정하는 안내인의 배려에 감사하며 일행보다 먼저 하산하기 시작한다. ABC 아래 길 옆으로 돌 무더기들이 보인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씩 쌓는 것이란다. 마을도 없는 이곳에서 저리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말인가? 저들 중에는 아마도 안나푸르나를 오르려던 등산전문가를 비롯하여 포터, 가이드 그리고 우리와 같은 트레커들도 있었을 것이다. 아직 트레킹을 마친 것은 아니지만 ABC까지 무사히 올랐다는 것에, 그리고 이 순간이 있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오늘은 MBC(3,700m)를 출발하여 트레킹의 최종 목적지인 ABC(4,130m)에 오른후 하산하여 Deurali(3,200)까지 내려가는 일이다. 오전 11시 ABC를 출발하여 MBC를 지나는 즈음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이곳의 날씨는 오전에는 화창했다가 오후가 되면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은가 보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후에 비가 내리고 있다. MBC와 Deurali 중간쯤 되는 곳에 Avalanche Risk Area를 통과한다. 이곳은 겨울 눈사태로 여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곳이라고 한다. 그중 한국인도 몇 명이 있다는 안내인의 설명을 들으며 산 정상에 바라본다. 바위산으로 보이는 정상에서 눈사태가 일어나 등산로를 덮친다면 꼼짝없이 매몰될 수 밖에 없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도 나는 변함없이 맨 후미에서 Sange와 함께 하산을 하고 있다. 지난번 비를 흠뻑맞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밝은 표정으로 산행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은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해 온 여분의 비옷을 Sange에게 입혀준다. 그도 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 마음이 훨씬 편해진다. 그도 역시 미소로 화답한다. 오늘은 비옷을 제대로 준비하여 입었기 때문에 우중의 산행이라도 그리 힘들지 않다. 오후 2시30분 오늘의 숙소인 Deurali에 Sangrila Guest House에 도착한다. 3,000m이상에 위치한 모든 롯지는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 이곳 역시 마찬가지다. 간단히 물휴지로 고양이 세수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든다.

#### 여덟째날, 2004년 4월 3일 토요일

오늘의 일정은 Deurali(3,200m)에서 Dovan(2,600m)를 거쳐 대나무가 많은 고을이라 이름이 붙여졌다는 Bamboo (2,310m)를 지나 Sinuwa (2,360m)의 언덕을 넘어 구름위의 도시인 Chomrong (2,170m)에서 다시 일박을 하는 것이다. 오전 7시30분 데우랄리를 출발하여 약 한시간정도 산행을 하여 Himalaya Hotel에 도착한다. 나는 맨 후미로 산행을 하였으므로 선두는 이미 도착하여 휴

식을 취하고 있다. 나와 상계가 도착하니 선두에서 다시 출발을 하자고 한다. 이제 막 도착한 나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후미에 대한 배려없이 바로 출발을 독촉하는 선두 일행으로 인하여 몹시 심기가 불편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하여 10시 40분경 Dovan을 거쳐서 11시 40분 Bamboo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한다. 오늘 하산중에는 2팀의 한국 원정대를 만났다. 한팀은 오십대 중반으로 보이는 일행이었고 또 한팀은 2명의 대학생이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할 기간동안 배낭여행을 하는 것이라 한다. Sherpa, Porter도 없고 짐도 간단한 배낭 하나씩 뿐이다. 티벳을 거쳐 이곳까지 왔단다. 건강하고 푸릇푸릇한 이들의 젊음과 용기가 정말 부럽다. 내가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나도 이들처럼 간단한 배낭하나 짊어지고 히말라야로 올 수 있을까? 아마 나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어쨌든 이 먼곳에서 한국인을 만나니 몹시 반갑다.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인 트레커들은 거의 없었으나 요즘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정말! ABC에서 “반갑습니다”라는 한국어가 쓰여진 것을 보았던 것이 생각난다. 그만큼 국력이 성장하였다는 증거일 것이다.

오후 2시 40분경 Sinuwa 롯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하는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비 맞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난데 정말 원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본다. 능선위의 계곡을 완전히 내려와 다리를 건너 다시 끝없이 이어지는 돌계단을 지나야 촌롱이다. 계곡에 올라와 촌롱 입구에 위치한 꽤 규모가 큰 상점에 이르러 잠시 휴식을 취한다. 진열장에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다과류 등이 보여 안내인에게 음식물의 유효기간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곳에는 식품의 유효기간이 없다. 이런 음식을 먹고도 문제없이 잘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왜 문제가 없겠는가? 그저 적응하고 살 뿐이겠지...

이전개가 넘는다는 돌계단을 지나 오후 4시 50분경 촌롱에 도착한다. 이곳은 전기와 물이 공급되는 곳으로 샤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양열로 온수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후 내내 비가 왔으니 온수가 나올 리 없다. 다행히 Cook인 Dilip이 따뜻한 물 한동이를 주어서 개운하게 샤워를 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어디에 부딪치지도 않았는데 양쪽 무릎에 온통 피멍이 들었다. 아마도 연일 무리한 산행 때문인 듯하다. 내일을 위해 맨소레담으로 마사지를 하고 파스를 붙여둔다.

#### 열하루째날, 2004년 4월 6일 화요일

아침 9시 10분 우리의 숙소였던 Elits Guest House를 출발하여 9시 30분 공항에 도착한다. 공항입구에서 Sange

와 Dawa가 차에서 내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뒤 그들의 집으로 향한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정이 들었나보다. 헤어짐이 많이 섭섭하고 마음 한 구석이 뭉클하다. 3일을 견고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가야 그들의 집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한다. 선물로 받은 짐을 등에 지고 집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아주 가벼워 보인다. 탑승수속을 마치고 2층 로비에서 안나푸르나 연봉의 마지막 모습을 감상하고 있다.

이제 이곳을 떠나는구나 생각하니 멀리 보이는 하이얀 천년설을 머리에 이고 있는 산의 능선에서 눈이 떨어지질 않는다.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거대한 산들의 넉넉함과 깊이, 강고함과 튼튼함 그리고 연봉을 이웃하여 살아가는 이곳의 순수하고 아름답고 나름대로 만족하며 여유롭게 살아가는 네팔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가슴과 머리와 몸 속에 빼곡이 채워 내 삶속의 신선한 에너지로 재생되어지길 기도한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곳에 위치한 Hanuman-dhoka Durbar를 가기위해 출발한다. 하누만(Hanuman)은 네팔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원숭이 신이라고 하며 도카(dhoka)는 문을 뜻한다고 한다. 네팔의 민가에서는 귀신을 쫓기 위해 탈을 걸어놓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탈이 이 하누만의 모습을 딴 것이라고 한다. 4월 6일-8일은 이곳에서 총파업을 하는 중이어서 모든 상가가 문을 닫고 교통수단도 모두 운행을 중단했다. 덕분에 대기오염상태가 지난번 보다 훨씬 나아져 비록 걸어 다닐 수 밖에 없지만 차라리 여행하기는 더 여건이 좋다. 이곳의 사원 분위기는 매우 무겁고 어두침침하며 산만하여 우리나라 사찰의 조용하고 한적한 풍경소리가 정겨운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르다.

다음으로 Monkey Temple이라고 알려진 스와얌부 나트(Swayambu Nath) 불교사원을 방문하기 위해 출발한다. 이곳은 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 양편에는 기념품을 파는 아낙들이 있고 여기저기 원숭이들이 보인다. 계단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가파르다. 숨을 몰아쉬며 사원에 올라서자 중앙에 큰 탑이 서있고 주변에는 마니차들이 빙 둘러져있다. 마니차 안에는 불경이 인쇄된 종이가 들어있으며 이곳 사람들은 이 마니차를 한번 돌리는 것이 경전을 한번 읽는것과 같다고 믿기 때문에 거리 곳곳에서 쉽게 이 마니차를 돌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또한 스와얌부 나트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의 문화유산이며 불교사원으로는 네팔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다. 목조건물과 석조건물로 이루어진 이 사원은 외국인에게는 원숭이사원이란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있다. 이 사원에서는 카투만두 시내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니 카투만두는 생각보다 규모가 큰 도시이다.

맺으며...

안나푸르나 트레킹은 불혹에 이르는 삶을 살아온 나에게 있어서 일상으로 부터의 탈출을 감행하는 아주 귀한 경험 이요 재충전의 시간이었다. 네팔이라는 나라, 네팔 국민 그리고 안나푸르나 산자락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내가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은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었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에 진정으로 감사함을 새삼 느끼게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전개될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데 더없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누군가 여행이란, 자기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여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늘 걸어본 땅에서 한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으로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곳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어 미움과 다투고 상처를 털어내고 본래에 있던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했던 글이 생각난다.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나는 어디론가 다시 여행을 떠날 것이다.

